

“5백만 과학기술인의 전당 과학대중화운동의 産室 기대”

● 참석자

金眞一<한양대 명예교수>
辛鍾午<중앙일보 과학부장>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

蔡永福<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무총장> 가나다순

● 사회·정리

朴澤奎<건국대 이과대 교수/본지 편집위원장>

◆ 때 : 1995. 10. 13. (금요일) 11:00

◆ 곳 : 한국과학기술회관회의실

▼본지는 지난 10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개관기념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金眞一, 鄭助英, 朴澤奎, 蔡永福, 辛鍾午씨

박택규 : 바쁘신 중에도 좌담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개관식을 가진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5백만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회관이 준공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건립에 얽힌 이야기, 현재의 운영실태, 그리고 개선점을 비롯해서 명실공히 과학기술인들의 토론의 광장으로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회관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그동안 남달리 노력하신 정조영상임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5년 집념의 결실

정조영 : 이 회관 건립은 우리 과학기술인의 30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제자신 과총에 10년 이상 몸담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이 그 위용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끼고 뿌듯한 감회에 젖게 됩니다.

지난 5년간 매일 불철주야 회관건립의 집념을 지니고 2백50억 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면적 2,412평에 총면적 8,150평, 지하 포함 17층의 현대식 건물인 이 회관은 각종 국제회의와 대규모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회의장은 1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이동식 4개 국어 동시통역설비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강당, 80~2백석 규모의 8개 중·소회의실과 12층에는 과학기술인 만남의 광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회관이 모든 과학기술인들로부터



▲정조영 과총상임부회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영, 관리면에서 세심한 배려와 효율적인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관건립을 위한 자금조달 및 모금과정 등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건립기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 일부를 임대해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식장이나 식당 임대 관해서도 일부에서 걱정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회관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믿어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했습니다. 우리 회관운영이 কে도에 올라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택규 : 과학기술한림원 사무총장이신 채영복박사는 대한화학회 회장으로 이 회관에 다른 기관보다 앞서 입주하셨지요.

입주못한 학회 혜택 아쉬워

채영복 : 예. 대한화학회는 30여년의 안암골시대를 마감하고 과학기술회관에 일찍이 입주했습니다.

GNP 1만달러인 우리나라가 2천년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앞서야 하고 그래야만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시대라고 하면서 외국학자 등이 학회를 방문할때 땀땀하게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의 빈약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번에 외관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큰 한국과학기술회관이 문을 열게 됨으로써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선진화되려면 몇사람의 과학기술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Infra-structure가 없어서는 과학기술의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학회가 선진화되어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학술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학기술회관의 건립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발전의 모체가 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추진체인 학회 또는 과학기술계가 그 위상에 걸맞는 건물이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과학기

술회관은 외관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매우 큰 건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회관에 입주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영세학회에 대한 지원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을 임대하는 문제 등 밖에서 떠드는 이야기에 너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대시설을 과학기술인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과학기술회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작은 일은 덮어두고 서로 잘 되도록 합심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



▲채영복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무총장

고 봅니다.

박택규 : 김진일교수께서는 건축전문가로 이 건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자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기능 위주 ... 시설 함께 활용을

김진일 : 사실 처음 저한테 도움을 청했을때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현명한 사람은 집을 안짓고 건물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30일 기공식과 함께 시작된 회관 건축공사를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 연결 정보센터 계획

정조영 : 건물 유지 운영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3년에 걸쳐 정부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총사업비 2백50억원을 확보하는 전략은 추진단계에서 여러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1백15억원을 확보한 것 외에도 기업체로부터 32억원을 협찬받았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염두에 두고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의식을 가져달라, 기업이 오늘의 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과학기술발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협찬 기업인들의 고귀한 뜻을 살려 기념홀의 명칭을 새기겠다"고 기업체를 찾아다니며 여러가지로 호소했지요.

그리고 먼저 채영복박사께서 지적하신 영세학회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집행예산이 5천만원 미만의 영세학회가 2백개 학회중에서 40%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들 학회들은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몇개학회가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직원수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회관내에 우체국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정보처리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신축에 따른 부채는 전혀 없고 30억원 정도를 기금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충도 제2도약을 맞아 과학기술계의 대변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벤트로 기능 살려야

신중오 : 과학기술회관은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과학대중화 운동의

우려되는게 있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내 집을 짓는다는 그런 집요한 주인의식을 가진 실제 집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물은 임기제 임원들이 주인 역할을 대신해야 하니 그게 가능할까, 또 가능하다면 누구를 믿고 하느냐, 정부만을 믿고 하느냐, 5백만 과학기술인들을 믿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나 과학기술인들의 회관의 필요성 인식, 공감대 형성을 정조영상임부회장께서 감지했기에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백만 과학기술인들도 자기 책임, 자기 부담을 한다고 정부가 믿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믿어요. 1개월전 개관식을 할때 많은 분들이 수고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나 어떤 분들은 좀더 현대식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평도 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굳너더기가 전혀 없는 꼭 필요한 것만을 제공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위주의 건물, 갖출 것은 모두 갖추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생각해요. 정상임부회장의 집념과 열의가 커서 그 의지에 건설관계 직원들이 달려들어가 이런 좋은 건물을 지었다고 믿습니다. 예식장문제만 해도 그 배경을 자세히 모르니까 일부의 걱정이 있으나 과학기술인들의 자체들도 이 결혼식장을 이용하여 과충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많은 분들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택규 : 한국과학기술자클럽도 과학기술회관에 입주했습니다만 앞으로 과학자클럽이 과학기술 보도와 지원에 더 큰 관심을 쏟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과학교류 구심점 되길

신중오 : 5백만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사업이던 회관준공을 기지단을 대표하

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정조영 상임부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였기에 이러한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믿습니다. 과학기자클럽을 위해 사무실을 배당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과학기술관련 학술발표 장소가 없어서 호텔, 대학강당 등을 빌려서 해온 것으로 아는데 이제 국제규모의 과학기술회관이 준공돼 그러한 행사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의 구심점, 학술교류의 장으로써, 또한 산학연의 활



▲신중오 중앙일보 과학부장

발한 교류장소로서의 기능을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남북과학기술 교류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언론계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과학기자클럽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과학보도의 산실로서의 커다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박택규 : 좋은 건물, 최첨단장비를 갖춘 시설 등이 마련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실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열자동차를 비교 전시하거나 근대과학기술계 원로 100인전, 과학기술인들의 미술작품전시회, 과학기술도서전시회 등 과학기술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중행사를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영복 :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회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은 너희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서 스스로



▲김진일 한양대 명예교수

해결하라는 등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과학기술분야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술의 전당과 같이 거대한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회관 건립을 계기로 부각되고 확산되어야 하는데 과충이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김진일 : 민족의 사활이 바로 과학기

술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운동을 보다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도 문화라는 범주에 넣어 대접하는 풍토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회관 건립을 계기로 학제간의 교류가 촉진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건축학관련학회가 7, 8개 있는데 이런 학회군을 묶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효율적일 수 있고 또한 학제간의 유기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과 문화예술 접목행사도

정조영 : 새 모델의 자동차 전시회나 신상품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개발하고 과학과 문화, 과학과 예술을 접목하는 흥미있는 행사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신종오 : 이 회관은 과학기술계 뉴스센터의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에만 오면 서울은 물론 지방의 연구소, 학회 등의 소식을 정확,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전당이 되는 마당에 상징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충 구관에 우리나라의 천문표지점이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문화유산은 금속활자, 측우기 등 매우 많습니다. 이 문화의 씨가 바로 과학기술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영복 : 회원수가 많은 학회에서는 논문발표건수와 참가자수가 워낙 많아서 과학기술회관 시설을 학회 논문발표장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회의 학술행사나 국제대회는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과학기술협력사업입니다. 둘째로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수립추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충이 잘 되어야 할 수 있으며 과충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과충이 포용하고 있는 과학기술 두뇌집단을 활용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정조영 : 과학기술회관이 앞으로 우리



▲박택규 건국대 이과대교수

나라의 복지사회건설과 과학문화창달의 전당으로 발전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세계화, 정보화에 공헌하고 연구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남북교류의 교두보역할을 하며 나아가 산학협동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택규 : 과학기술회관 준공을 다함께 축하하며 과학입국과 기술자립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기원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S7)